

에이즈 퇴치 기반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유관 학회, 민간 단체, 관계부처,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
-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말 최종계획 발표 예정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월 21일(수) 오후 2시 삼경교육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이하 제2차 예방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매 5년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1차 예방관리대책은 2019~2023년 시행되었으며, 그 성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점과 시사점을 검토하는 2023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대책(2024~2028)」 기본안을 마련하였다.

*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 개발 연구(대한에이즈학회, 2023)

제2차 예방관리대책의 5대 전략은 ①신규 감염 예방, ②적극적 환자 발견, ③신속, 지속적인 치료, ④건강권 보장, ⑤관리 기반 구축이며, 이에 맞춰 15개 핵심과제와 45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유관 학회, 민간 단체, 관계 부처, 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논의하고 수렴하는 장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제1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 추진을 통해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치료율과 바이러스 억제율 등을 개선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후천성면역결핍증 퇴치를 위해,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후속 절차를 거쳐 제2차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치료받는 감염인 비율은 96.2%, 치료받는 감염인의 체내 바이러스 억제율은 96.2% 도달

(단위: %)

구분	'19년	'22년
치료율	94.7	96.2
바이러스 억제율	94.9	96.2

질병관리청은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 제2차 예방관리대책을 3월말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안)」 공청회 개요

담당 부서	감염병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영준 (043-719-7310)
		담당자	연구관	김성남 (043-719-7915)
	에이즈관리과		연구사	김은영 (043-719-7917)

□ 추진 배경

-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4~’28)(안)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수렴 필요

□ 공청회 개요

- (일시) 2024년 2월 21일(수), 14:00~15:30
- (장소) 삼경교육센터 7층 회의실(서울 중구 소재)
- (주요내용)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안) 의견수렴
- (참석대상) 관련부처(복지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등), 시·도 담당자, 유관 학회(대한에이즈학회 등)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 세부 순서(안)

시간	주요내용	비고
13:30~14:00 (30')	등록	
14:00~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김성남 연구관
14:05~14:10 (5')	인사말	▶감염병정책국장
14:10~14:20 (10')	예방관리대책 취지 및 경과 소개	▶에이즈관리과장
14:20~14:40 (20')	예방관리대책 추진과제(안) 발표	
14:40~15:30 (50')	질의응답 및 제언	▶참석자
15:30~15:40 (10')	폐회	▶에이즈관리과장

□ 향후 계획

-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심의(‘24.3월)
-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 발표(‘24.3월)